

# 김세영, LPGA투어 오초아 매치플레이 우승

### 통산 6승 달성, 세계랭킹 3위 쥘타누간과 접전 끝 승리... 허미정, 미셸 위에 막판 뒤집기 3위

김세영(24·미래에셋)이 최정일 빨간바지의 마법을 선보이며 세계랭킹 3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을 누르고 매치플레이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2위 김세영은 8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총상금 120만 달러) 대회 최종일 결승에서 쥘타누간을 꺾고 우승했다.

김세영은 이날 허미정(28·대방건설)과 맞붙은 준결승에서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하며 4홀을 남겨놓고 5홀 차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재미교포 미셸 위를 꺾고 올라온 장타자 쥘타누간. 김세영은 초반 1~3번 홀을 연속으로 따내며 주도권을 잡았다.

1번 홀(파4) 버디에 이어 2번 홀(파5)에서는 이글을 잡아 파와 버디를 한 쥘타누간에 앞섰다.

3번 홀(파3) 마저도 버디에 성공하며 초반부터 3홀 차를 만들었다.

3홀 차 리드를 이어가던 김세영은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하며 쥘타누간과 격차가 줄었지만 12번 홀(파4)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다시 3홀 차로 벌렸다.

순위는 우승이 예상됐지만 막판 쥘타누간의 반격에 경기는 접전 양상이 펼쳐졌다. 김세영이 14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하며 다시 2홀 차로 좁혀졌다.

17번 홀(파5)에서 쥘타누간이 버디에 성

공하며 1홀 차가 됐다. 예측할 수 없던 승부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두 선수가 비기면서 김세영이 1홀 차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세영은 시즌 첫 승과 함께 지난해 6월 바이어 클래식 우승 이후 약 11개월 만에 투어 통산 6승째를 거뒀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이면 늘 빨간색 바지를 입는 김세영은 이날도 최종일 어김없이 빨간 바지를 입고 필드에 섰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5승을 모두 역전승으로 일궈내고 LPGA 투어에서도 손에 땀을 쥐게하는 연장 승부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김세영은 강심장답게 올 시즌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바뀐 이번 대회에서 시즌 첫 정상에 올랐다.

김세영은 2015년 데뷔 첫 해 3차례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하며 LPGA 투어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에도 2승을 쓸어 담으며 2년 차 징크스 없이 승승장구했다.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앞서 7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지난 2월 혼다 타이랜드에서 3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 20위권 밖에 머물렀다.

최근 텍사스 스타아웃에서는 시즌 첫 첫 탈락까지하며 부진했던 김세영은 LPGA 투어 정규대회 중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기분 좋은 우승을 거머쥐며 분위



김세영은 8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총상금 120만 달러) 대회 최종일 결승에서 쥘타누간을 꺾고 우승했다.

기 반등에 성공했다.

3, 4위전에 나선 허미정은 재미교포 미셸 위를 상대로 후반 대역전극을 펼치며 3위를 차지했다.

10번 홀까지 5타가 뒤졌던 허미정은 11번 홀을 시작으로 내리 3개 홀을 따내며 추격에 나섰다. 15번 홀에서 1홀 차를 만든 뒤 17번 홀을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21번째 홀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22번째 홀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파에 그친 미셸 위를 누르고 3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한국은 올 시즌 LPGA 투어 10개 대회 중 6승을 수확했다. /김민근기자

## 아시아 청소년 넷볼선수권대회 13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서 개최

전주시넷볼협회(회장 정용성)와 아시아넷볼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2017 아시아청소년 넷볼선수권대회'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주에서 한국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및 넷볼 경기실력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천년고도 전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회는 6일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한국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아시아 10개팀(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대한민국) 약 200여명의 선수들의 흥미진진한 넷볼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국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전통한복체험, 캐리커처 등)가 마련돼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국제관광도시 전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시티투어도 진행된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대회를 통해 국내에서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U-20 월드컵 서울에서 거리 응원 열린다

2002 한일월드컵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거리응원이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U-20 월드컵 기간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거리응원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직위는 FIFA 주관 행사로는 두 번째로 큰 FIFA U-20 월드컵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높이고, 축구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광장은 14일 열리는 세네갈과의 평가전과 20일 기니와의 개막전 때 거리응원 장소로 활용된다.

한국의 조별리그 23차전이 열리는 28일과 29일 거리응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공연 행사도 이어진다. 14일에는 '크라이 넷'과 '술탄 오브 디스코', 20일에는 '스윙스와 최하민', '메이브레이크', '킹스턴 루디스카', '타블즈', '몽라, 나희경', '로스야미고스', 28일에는 '국카스텐'과 '소란', 29일에는 '장기하와 얼굴들'과 '서사무엘이 거리응원의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 밖에 '날아라솔돌이', '마지막승부차기', '피파온라인게임', '축구공 종이접기', '네이블축구' 등의 다양한 축구 이벤트와 에스플라 알레그리아의 거리예술 퍼레이드, 페이스페인팅 등의 가족 참여행사도 마련됐다.

거리응원 및 공존 행사에는 FIFA 파트너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내셔널 서포터 기업들이 후원한다.

조직위는 한국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거리응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박태환, 아레나 프로 스вим 시리즈 남자 자유형 1500m 1위

## 자유형 400m 이어 대회 3관왕

박태환(28·인천시청)이 올해 첫 공식 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했다.

박태환은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매컬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7 아레나 프로 스вим 시리즈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5분06초38로 1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400m에서 3분44초38의 좋은 기록으로 1위에 오른 박태환은 전날 자유형 200m에서 1분46초7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날 3관왕을 완성했다.

박태환은 결승을 건너뛴 자유형 100m를 뺀 출전 전 종목에서 모두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되는 제17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롱코스) 출전 티켓이 달려있다.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대회 기록을 세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기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태환은 자유형 100m, 자유형 200m, 자유형 400m, 자유형 1500m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자유형 1500m에서도 FINA A 기준기록인 15분12초79를 무난히 달성했다.

3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치른 박태환은 150m 지점부터 2위와 2초 가까이 격차를 벌리며 목주에 나섰다.

박태환은 반환점을 7분33초05로 통과하며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박태환은 이후에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1위를 지켰다. 마지막 50m에서는 25초80을 찍으며 여전히 힘이 남아있음을 입증했다.

대회를 모두 마친 박태환은 호주로 건너가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FINA 세계선수권대회(롱코스)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박태환은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매컬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7 아레나 프로 스вим 시리즈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5분06초38로 1위를 차지했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